

전공을 잇고, 세대를 잇는 축제, 한농제 '있다, 커넥트(CONNECT)'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가을 축제, '한농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 한농제는 전공별 부스 운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학생 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학생 참여도가 특히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연한 가을빛이 더해진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전공의 색깔을 담아낸 프로그램과 함께 서로 소통하며 축제를 완성해 나갔다.



승마 체험 중인 말산업반려동물전공 학생들이
(출처-그린 총학생회 제공)

■ 전공별 부스 운영... "우리 전공이 이렇게 맛있고, 재미있다!"

올해 한농제의 특징은 전공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전공별 부스는 1, 2일 차 모두 운영되며 많은 학우들이 방문했다. 먹거리 부스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장소였다. 한우전공의 육전과 소머리 수육, 수산양식전공의 마회와 통새우튀김 등 전공 학생들이 직접 조리과 판매를 맡아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말산업반려동물전공의 승마 체험, 화훼전공의 꽃꽂이, 산림전공의 못 박기 체험 등 전공 특색에 맞는 특별한 부스까지 준비되어 있어 한농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 졸업생과의 대화, "후배의 길을 밝히다."

이번 한농제에는 '졸업생과의 대화' 코너가 새롭게 마련되어 재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각 전공의 선배들이 다시 캠퍼스를 찾아와,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진로 이야기를 후배들과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는 소규모 테이블 토크 형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열린 분위기가 특징이었다. 특히 선배들이 실제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청년 농 지원사업 활용법, 창업 초기의 자금 운용, 인력 관리 등 실제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조언을 아낌없이 들려주었다.

■ 심장을 울리는 무대, 축제의 클라이맥스

축제 첫날 밤에는 '코드블루', '파소', '자판기', '리프', 그리고 우리 학교 'SLAM'의 밴드 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무대가 시작되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음악을 즐기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둘째 날 밤은 밴드 '일월'과 '무장전선', 그리고 가수 '노라조'의 공연이 이어졌다. 독특한 의상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노라조'는 등장만으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끌어올렸다.

■ 스탬프 투어-롤렛에서 플로깅까지, 학생이 완성한 축제

그린 총학생회는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탬프 투어와 롤렛 게임 부스를 운영했다. 축제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돌며 도장을 모았고, 스탬프를 모두 채운 학생들은 축제 기념 후드티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축제가 남긴 흔적을 정리하는 일 역시 학생들의 몫이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총학생회와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은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캠퍼스 곳곳을 돌며 플로깅을 진행했다. 운동장과 전공 부스 주변, 기숙사 인근까지 꼼꼼히 정리한 덕분에 축제가 끝난 뒤의 캠퍼스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플로깅 활동
(출처-그린 총학생회 제공)

이틀간의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전공 안팎에서 쌓인 추억과 새로운 인연, 그리고 다음 해를 기약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캠퍼스 곳곳에 남아있다. 올가을 한농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학생들의 에너지와 연대기,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현장에서 도전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송민규 문화부장
minguda97@naver.com

뛰는 발자국에 담긴 청춘(靑春): 그린 총학생회 런닝이벤트 현장기



행사 시작 전 출발 선에 대기중인 학생들
(출처-그린 총학생회 제공)

지난 10월 27일(월) 저녁, 재학생과 교직원 30여명이 우리 학교 정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린 총학생회와 러닝동아리 '츄러닝'이 공동 주관한 『우리가 그린 with 츄러닝 : 러닝 이벤트』가 정식 개최된 것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코스 설명과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참가자들이 혼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정리했다. 참가자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출발 신호와 함께 코스로 진입했다. 이번 러닝 코스는 캠퍼스 내 5km로 구성

되었으며, 각 지점에는 식수대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방향을 안내하고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 행사의 특징은 기록 경쟁을 최소화한 참여 중심 운영 방식에 있다. 러닝 경험이 적은 학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록 방식을 이원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전체 참가자 중 최단 기록을 낸 3명에게는 '기록상', 5km 구간을 40분 페이스에 가장 근접하게 완주한 3명에게는 '페이스상'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완주자에게는 '기록이상'을 수여하며 완주에 의미를 두었다. 이를 통해 러닝 숙련도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수상 기회를 마련하였고, 여기에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자체의 의미를 강화했다.

출발 지점에 설치된 간이 응급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의 탈진이나 컨디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물, 이온음료, 에너지바 등 보급품이 제공되었으며, 참가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는 다양한 체력 수준의 학생들이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운영 방향의 연장선이었다. 또한 러닝코스가 차로로 구성된 만큼, 안전요원들은 참가자들과 차량 간 접촉이 없도록 차량 통제에 큰 노력을 쏟았다.

전 참가자가 완주 지점을 통과한 이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최단 기록자는 23분 14초, 최후 완주자는 58분 18초였다. 30여명의 참여자 전원에게 완주기념품 수여와 시상식을 마치고, 그린 총학생회는 코스 점검과 안전 장비 회수, 행사 현장 플로깅 활동이 이루어지며 행사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종료되었다.

『우리가 그린 with 츄러닝 : 러닝 이벤트』는 캠퍼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라톤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존 행사들과 다른 성격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내 동아리와 총학생회 간 협업 이벤트라는 새로운 도전이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성과다. 참여 중심 기획, 안전 기반 운영, 자치 조직 간 연계라는 세 요소는 향후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로 그린 총학생회는 새로운 방식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학생들은 캠퍼스를 달리며 일상의 공간을 다르게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가 그린 with 츄러닝』은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기획으로 평가된다.

김서진 기자
0701seojin@naver.com

전공 선택, 진로를 그리는 첫 번째 질문 – 작물산림학부 편



작물산림학부 전공별 특징
(출처-학교 홈페이지)

전공 선택은 단순한 수업의 영역을 넘어, 졸업 이후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기사는 전공 선택을 앞둔 학부생과 전과를 고려 중인 재학생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실제 전공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학습 커리큘럼 소개뿐 아니라 실습 환경, 졸업 후 진로, 전공생들의 조언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난 기사에서는 원예학부와 농수산융합학부의 8개 전공을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작물산림학부(식량작물, 특용작물, 조정, 산림, 버섯)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식량작물전공 – 3학년 김환희 학생

· 주식 작물의 모든 것을 배우다

식량작물전공은 벼를 중심으로 고구마, 감자 등 한국인의 주식 작물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재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익히는 현장 중심 교육이 특징이다. 1학년 교육과정은 전공 실습동에서의 쌀, 감자, 고구마 등 작물의 파종, 정식 실습을 경험하며 농사의 기초 지식을 익힌다. 김환희 학생은 이 실습 수업을 통해 땅과 노력으로 얻는 지식의 가치를 강조했다.

· 강한 노동 강도, 땅과 맞바꿔 체득한 지식

식량작물 전공은 1학년 과정에서 작물유전학 같은 기초 이론과 재배 실습을 병행하고, 3학년이 되면 각자 선택한 작목에 대한 심화 학습으로 진입한다. 따라서 2학년 장기현장실습 과정은 대부분 생산 농장에서 진행되며, 일부는 도정 및 유통을 병행하거나 체험농장을 겸하는 곳에서 실습하기도 한다. 전공 작목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우리 대학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실습이 고된 전공이다. 그는 “실습장에서 버티지 못하면 졸업 후에도 자립하기 어렵다 보니, 이 과정의 강도를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몸으로 체득하는 배움이 크기에 이 힘든 경험이 전공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 주는 시간이라며 실습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다.

· 변화하는 농업, 필요한 교육 방향

그는 인터뷰 중, “현재 커리큘럼이 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감자나 고구마 등 타 작물 교육도 심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최신 농업 기술이나 정책과 연결된 실무 중심의 수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사료작물이나 가루쌀 같은 벼 대체 작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그는 “보다 현장에 밀착된 사료작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농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량작물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식량작물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분야라 승계가 약 90% 정도로 일반적인 편이다. 하지만 장기현장실습에서 인연을 맺은 실습장으로 취업하거나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같은 기관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재배 지역에 한정되지 않기에,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각 지역의 재배 방식, 사육 농기계, 품종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벼는 여전히 우리 식단의 중심 작목이고, 사료작물 등 새로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우리 전공은 단순히 벼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주식 작물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구상해 볼 수 있는 전공”이라고 전공 비전을 강조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식량작물 전공은 여전히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용작물전공 – 전공심화과정 김태환 학생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용작물 산업

특용작물전공은 인삼, 산채, 허브 등 식·약용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 가공, 판매하는 전반적인 산업을 교육한다. 전공심화과정 김태환 학생은 “기능성 작물의 기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특용작물 산업의 목표”라고 설명하며, 1학년 과정에서 재배 실습을 통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쌓게 된다고 밝혔다.

· 실습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의 현실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생산 농장과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생산 농장에서는 쑥, 인삼, 허브 등 다양한 작목의 재배법을 익히고, 연구기관에서는 품종 개량과 연구에 집중한다. 그는 특히 “현장에서 뛰어보야 어떤 것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직접 느낄 수 있으며 경영 공부도 된다”고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와 취업 중심의 진로

본 전공은 29년 전, 학교 개교 때부터 있었던 만큼, 졸업생 선배들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선배들이 축제나 대면식 때 학교를 방문해 정보를 공유하고, 강사로

초청되어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 비율이 특히 높은 편인데, 가업을 잇기보다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졸업생들은 주로 농장이나 영농조합 법인회사 등으로 진출한다.

· 특용작물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특용작물은 다루는 작목이 다양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품목을 잘 고민해야 한다. 김태환 학생은 “특용작물은 규모의 싸움이 되다 보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하지만 작물 특성상 작물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 사업을 일구며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덧붙였다.

조정전공 – 졸업생 안○○

· 식물 생리부터 조정 설계까지, 폭넓은 학문

조정 전공은 식물의 생리와 생태, 각 식물의 특징과 식재 디자인을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수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조정 계획과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유지 관리, 정원에서의 치유 프로그램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1학년 때는 생리학과 측량 등 이론과 함께 번식, 식재 등 실습을 병행하며 기초를 다진다. 2학년 때는 장기현장실습으로 실무 경험을 쌓고, 3학년이 되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더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졸업논문을 작성하며 졸업 후 진로와 영농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

· 현장 중심의 실습 과정과 프로젝트 경험

본 전공의 2학년 장기현장실습장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조정수 생산 농가에서는 번식부터 관리, 유통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고,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시장 트렌드와 매장 운영 방법을 익힌다. 체험농장과 치유농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수목원과 생태원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을 연구한다.

실습을 거친 뒤, 3학년 과정에서는 대상지 분석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 직접 경험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이 조정시공학 수업에서는 학교 부지 일부에 학생들이 직접 콘셉트를 설정하고, 설계 도면을 작성한 후 조성 작업을 진행한다. 마치 실제 조정 회사가 된 듯,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조정의 전 과정을 실습한다. 안○○ 졸업생은 이러한 수업이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지속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졸업 후 진로와 전망

본 전공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가업을 승계하거나 취업을 선택한다. 창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 드물며, 독립 사업보다는 기존 농장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취업 시에는 수목원, 원예특작과학원, 산림청 등으로 진출하며, 영농 의무 기간이 인정되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드물게는 건설사에서 조정 관련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래의 조정 영역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국가정원, 민간정원, 수목원 등의 시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조정수 생산, 조정 디자인, 식재 식물 유지 관리 등 모든 영역에 조정업 종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 조정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현재 조정전공이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는 제도 교육이 중심이지만, 캐드(CAD)와 같은 그래픽 디자인 실무 강의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접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수업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학내 부지뿐 아니라 실제 조정 회사처럼 외부 부지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했다. 단순히 나무를 식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 설계, 인테리어, 조정수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나무를 좋아하는 학생은 물론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도 조정전공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산림전공 – 3학년 김규호

· 숲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 산림전공의 가치

산림전공은 단순히 '나무를 배우는 전공'이 아니다. 조림, 육림, 목재 생산, 임산물 채취와 가공은 물론이고, 산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복합 경영까지, 산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을 두루 다루는 학문이다. 김규호 학생은 “산림전공은 환경과 산업의 접점을 배우는 전공”이라며, 숲이라는 거대한 자원을 어떻게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 이론과 실습이 조화로온 교육과정

1학년 과정은 수목의 이름과 특징을 익히고, 숲 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수립, 삼목·점목·분갈이 같은 수목 생산 실습을 통해, 산림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2학년이 되

면, 진로에 따라 농원, 산림조합, 수목원, 생태원 등에서 장기현장실습을 나가 실질적인 재배, 유통, 산림조사 등의 실무를 경험한다. 그는 “2학년 실습을 다녀온 후 다들 일하는 요령이 생겨, 학업에 현장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3학년 과정은 더욱 전문화된다. 재배기술, 유통, 판매, 경영 전략 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심화 수업이 이뤄지며,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산림 경영의 실체를 가까이서 접한다. 실습은 학교 뒤 산이나 실습동 하우스를 활용해 진행된다. 임산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산림치유 수업을 통해 숲에서 명상, 로프 체형 등을 하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한다.

· 졸업 후 진로, 그리고 활발한 동문 네트워크

본 전공 졸업생들은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이 가업을 승계하며, 취업은 주로 산림조합, 산림청, 산림 관련 공공기관으로 많이 진출한다. 때문에 4학년 전공심화과정 지원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창업의 경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묘목 생산 및 판매 등 숲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이들도 많다.

산림전공의 또 하나의 강점은 활발한 동문 네트워크다. 동문회가 잘 갖춰져 있어 졸업생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진로에 대한 조언은 물론, 산림 산업의 최신 흐름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졸업생들은 학교 축제 같은 주요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후배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 산림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산림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보라고 조언한다. “산불 예방, 자연 보호 같은 문제는 산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결국 자연 위에 서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숲은 단순히 나무가 많은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자연이 주는 가장 본질적인 자원이다. 산림을 통해 치유와 산업, 환경보호를 모두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본 전공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버섯전공 – 3학년 정연주

· 버섯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본 전공은 버섯의 생육, 수확, 출하 과정을 모두 배우는 전공이다. 1학년 때는 미생물의 기초와 버섯의 생활사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2학년 때 농가나 기관에서 버섯 생산의 전 과정을 실습으로 익힌다. 3학년이 되면 창업 준비에 집중해 버섯 생육에 초점을 두고 학습한다.

· 현장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교육

장기현장실습은 일반 버섯 농가와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농가 실습에서는 퇴비 제조, 생육 방법, 수확 및 출하 등 전 과정을 익힌다. 연구기관에서는 생육 배지를 만들기 위한 밀짚과 볏짚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 실험과 배양, 공정 연구에 집중한다. 그는 “전국에서 버섯전공이 있는 곳이 우리 학교밖에 없어 버섯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버섯전공의 핵심 수업으로는 버섯의 생활사와 분별법을 배우는 버섯학총론과 조지 분리, 균사체 확인 등 직접 실험하는 미생물실험실습을 꼽았다.

· 높은 창업 비율과 끈끈한 커뮤니티

졸업생 중 절반 정도가 창업을 선택한다. 초기 비용이 덜 드는 품목으로 시작해 확장할 수 있다는 비전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새송이버섯이나 팽이버섯은 대기업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창업이 어렵지만, 나머지 품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자본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성공한 선배들의 사례가 자주 공유되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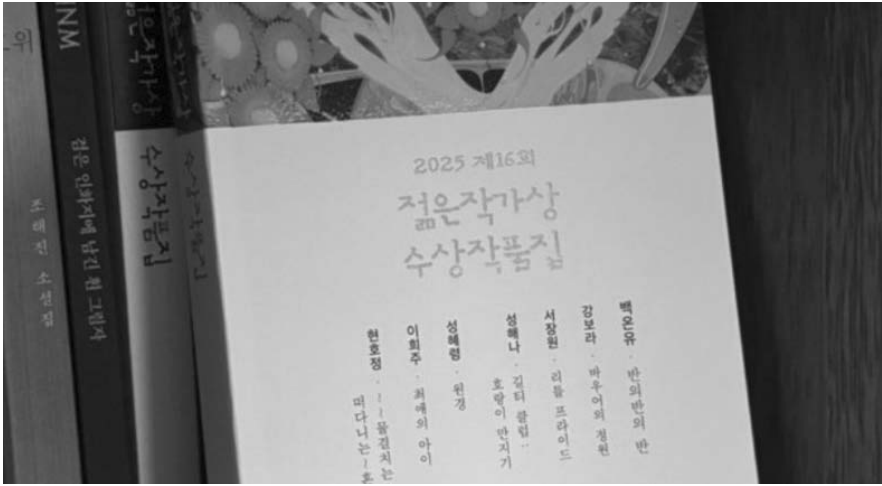
· 버섯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버섯은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작은 시작에서 큰 성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버섯전공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공 선택은 앞으로 어떤 농업인으로 성장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번 기사에 담긴 작물산림학부 각 전공의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실습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길을 찾으며 자신만의 영농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작물산림학부 소속 다섯 전공의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 졸업 후 진로를 중심으로 전공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농인을 위한 겨울 독서 가이드



추천 도서 중 하나, 2025 제 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출처-온라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따뜻한 차 한 잔과 책이 생각나곤 한다. 농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책은 쉽이지 영감의 원천이 된다. 이번 겨울, 학업과 실습으로 바쁜 한농대 학생들이 잠시 멈춰 서서 책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길 바라며, 재학생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 그리고 본 기자가 선정한 도서 몇 권을 함께 소개해보겠다.

[학생들이 전하는 추천의 한마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꽃꽃》 中-

가끔 짧은 시 한 편이 길고 고된 하루를 위로하곤 한다. 전국민의 애송시, 《꽃꽃》이 수록되어 있는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농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짧고 단정한 문장 속에 담긴 따뜻한 시선은, 농업과 사람, 자연을 담아있다. 한 학생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게 읽으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2025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과오를 범한 우상이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를 무작정 두둔하고 비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랑에 빠진 ‘나’는 어떤 함정에 걸리게 되는지, 지켜보며 따라가는 일이 무척 재밌었다. 이중적인 묘순에 빠진 자가 택할 수 있는 태도와 인

식.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고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불편해 차라리 모르기를 택하는 인물이 이상하기는커녕 비겁해 보이지조차 않았던 이유는 그 이중사고야말로 현재를 사는(견디는) 우리 모두의 공통 감각이기 때문이다”

-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中

작가로 데뷔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쓰인 단편소설 집이다. 책장을 넘기면 젠더(Gender), 비틀린 팬심, 신화(神話) 등, 이색적인 주제로 쓰여진 7개의 소설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도서는 “새로운 작가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이 세대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 손꼽혔다. 농업계 대학생이라는 정체성 안에서도, 청춘의 고민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공감할 만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우리의 생태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어진 연결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침묵의 봄》 中-

환경운동의 고전이자 농약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농업 기술이 효율적인 것과는 별개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게 됐다”는 학생의 말처럼, 이 책은 미래 농업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의식을 던진다. 농업이 생태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실질적인 영감을 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박용후)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 《관점을 디자인하라》 中

배달 플랫폼 ‘우아한 형제들’의 마케팅을 이끈 박용후 대표가 전하는 ‘관점의 전환’ 이야기. 음식 배달의 한 획을 그은 기업 ‘배달의 민족’을 설립, 경영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찰을 준다. 한 학생은 “소비자 니즈를 읽고 다시 찾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업을 비즈니스로 확장하려는 한농대 학생들에게 꼭 맞는 도서다.

[기자가 추천하는 한농인의 책장]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태수)

“삶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차 향기 속에서 피어나는 여유 - 동아리 ‘다도부’를 알아보다

‘다도’라고 하면 흔히들 ‘엄격하고 조용한 분위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전통 예절’을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는 인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다도부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동아리다. 차 문화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차를 함께 즐기며 바쁜 삶 속에서 여유를 찾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도 활동 현장 (출처-김서진 기자)

다도부의 활동은 단순히 형식적인 다도 예절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1학기 동안 진행된 활동만 살펴보아도 그 폭이 꽤 넓다. 전통 체험의 일환으로, 부원들은 전통 음요인 수정과를 직접 만들어보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한국 전통차 문화의 향기를 느꼈다. 전통 체험뿐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색다른 활동도 이어졌다. 바로 ‘말차 버블티 만들기’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차를 개어낸 뒤, 이를 활용해 버블티를 만드는 체험이었다. 이 활동은 부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다. 이러한 체험 활동은 차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다도부는 자유로운 교류 시간을 통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한 형식 없이, 차를 마시며 자유롭게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은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부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차의 향기 속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공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도부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소중한 쉼터로 자리잡고 있다.



다도 활동 현장 (출처-김서진 기자)

다도부는 전통을 배우고 실천하는 동시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차 한 잔으로 좁혀주는 공간이다. 엄숙하거나 형식적인 다도만을 고수하기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차 문화를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다도의 문이, 이 동아리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편안한 쉼터로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다도부는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다도부는 언제나 열린 쉼터다.

김서진 기자

0701seojin@naver.com

시작의 힘에서 성장의 힘으로, 편입생 김동관 학생을 만나다

지난 2024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편입 전형을 도입하며 진로를 바꾸어 새롭게 농업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었다. 합격자는 1학년 2학기로 편입해 전공 교육을 받는다. 완연한 가을빛이 물든 캠퍼스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편입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요즘, 본 기자는 김동관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 안녕하세요.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2학제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전공에 편입한 김동관입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청년 농부가 되기 위해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Q2 : 한농대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2 : 사관학교에서 기초 기술과 현장 운영 능력은 익혔지만,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영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서 실력을 다지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농대의 실습 중심 교육과 인프라가 스마트팜 운영 목표와 잘 맞아 지원했습니다.

Q3 : 두 기관의 시스템을 비교해 주세요.

A3 : 사관학교는 창업 직전까지 빠르게 실전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속도감 있는 현장 교육입니다. 반면 한농대는 재배·경영·유통·정책을 폭넓게 배우며 농업을 종합 산업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관학교가 ‘시작할 힘’을 줬다면, 한농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을 키우는 공간이라

고 느낍니다.

Q4 : 한농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4 :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교류하며 생산부터 유통과 수출까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 지도와 지원 프로그램도 큰 장점입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한농대를 거쳤다’는 사실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다 보니 일상의 대화에서도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 농업 기반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Q5.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5 : 허브류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체험·교육과 결합한 6차

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용실이나 카센터처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업체들과 협력해나가고 싶다”며 “홍보활동 이외에도 설문조사나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휴업체를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휴업체 제도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아껴주는 든든한 지원이자,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다. 다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제휴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생들이 손쉽게 제휴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작은 할인이라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다. 학생증만 챙기면 언제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시험 기간 카페에서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당에서 부담 없이 활용해보길 권한다. 제휴업체 제도는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연결고리다. 당장 오늘 저녁, 제휴업체 한 곳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학생증 한 장’이 생각보다 큰 든든함을 줄지도 모른다.

현재 제휴업체 목록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업로드되지 않은 제휴업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문의할 수 있다.

나은빈 기자

gfriend1202@naver.com

-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中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조용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에세이. 농업처럼 느리지만 꾸준한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하루를 정리하며 읽기 좋은 문장들이 많고,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에서 온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왜 일하는가》(이나모리 가즈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왜 일하는가》 中

경영자이자 철학자인 저자가 일의 본질을 묻는다. “일은 곧 자기 수양의 과정이며, 세상에 공헌하는 길”이라는 그의 말은 농업을 배우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농업 현장에서의 노력, 실패, 그리고 성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불변의 법칙》(모건 하우절)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 이다.”

- 《불변의 법칙》 中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삶과 성공의 원리를 다룬다. 농업 경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시장의 흐름보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크게 다가올 것이다. 경제서이지만 문체가 쉽고, 인생을 관통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겨울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계절이다. 실습과 과제, 그리고 각자의 진로 준비로 바쁜 나날이지만, 책 한 권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학생들이 추천한 책을 통해 농업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기자가 소개한 책으로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2026년부터는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이 발행되어 학생증 없이도 도서대출이 가능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기사를 마무리한다.

제29대 총학생회 ‘그린’, 장기현장실습 토크쇼 개최



장기현장실습 토크쇼 단체사진
(출처-그린 총학생회)

실습 경험 공유의 장…교수·선배·학생이 한자리에
제 29대 총학생회 ‘그린’은 학생들의 장기 현장실습 경험을 공유하고 실습 준비를 돕기 위해 ‘2025 장기 현장실습 토크쇼: 성장, 새로운 가치, 현장에서 배우다’를 개최했다. 행사는 1학년 이민성(특용작물전공), 이태웅(원예환경시스템전공) 학생의 사회 아래, 실습을 갓 마친 2학년 김진호(원예환경시스템전공), 이재영(농수산푸드테크전공) 학생, 그리고 졸업을 앞둔 3학년 김유석(채소전공), 문지민(말산업전공) 학생으로 총 6명의 학생과 농수산작업안전 강의의 김효철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꾸러졌다. 토크쇼는 실습 적응 과정,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 농가와 연구기관의 차이 등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실습 생활 중 느꼈던 어려움과 보람,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현장감 있는 경험담을 전달했다. 김효철 교수는 실습에서의 안전 의식을 강조하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스스로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크쇼가 마무리되기 전, “8·2 법칙이라는게 있어요. 사회에 나가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건 2만큼만 할 수 있고, 8은 하기 싫고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해야한다는거죠.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다. 3학년 김유석 학생(채소 전공)은 실습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첫 희식 자리를 꼽았다. 그는 “수확이나 약제 살포 같은 작업도 기억하지만, 직원들과 실습생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운했던 점, 고생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

던 희식 시간이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업무적으로만 만나다 보니 서로의 진심이나 생각을 알기 어려운데, 희식 덕분에 관계가 풀리고 더 잘 지낼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3학년 문지민 학생(말산업관리동물 전공)은 장기현장실습을 ‘적자생존’으로 정의하며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장기현장실습이란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 적응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노력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습은 적자생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지민 학생은 후배들에게 “실습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며 적응하려는 태도가 실습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핵심이에요.”라며 실습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 이번 장기현장실습 토크쇼는 내년 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농업 현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준비된 토크쇼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현실적인 방향을 잡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몇 달 뒤에는 꿈을 위해 디딤 발판을 만들려 떠날 1학년 학우들에게 응원을 건네며, 기사를 마무리하겠다. 이유빈 사회부장 t22ntitan@naver.com

2026 장기현장실습의 변화, 어떻게 될까?

지난 5월, 경남 함천의 한 돼지 농가에서 장기현장실습 중 이던 학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총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실습장 긴급 안전점검 및 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전공교수 중심의 개선대책 TF를 꾸려 재학생·교직원·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장기현장실습 3개 분야 9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대책은 △실습장 안전 및 협정 이행 점검 △학생·현장교수 안전교육 강화 △실습관리 강화다. 학교는 이 내용을 1~3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공유했으며, 협정 이행점검, 고충 상담창구 활성화, 실습생 소집 안전교육, 전공교수의 실습일지 지도 강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적용했다. 또한 9월에는 3학년 장기현장실습 우수 사례에 1학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안전인식 확산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대책(3개 분야 9개 과제)>	
실습장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안전 및 협정이행 점검, 실습관리센터 설치
안전교육	1학년 및 2학년(실습생) 전공별 안전교육, 현장교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실습현장관리	실습장 정예화, 전공교수의 실습관리 강화, 2인 1조 실습 제도화 등

올 2학기부터는 기존 학부 단위의 농수산작업안전 강의가 전공별 강의로 개편되며 더욱 심층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장 DB 구축, 실습장 안전점검 확대(연 3회 → 4회) 등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기존 교무처 산하 부서였던 ‘장기현장실습팀’은 2025년 12월 1일 ‘장기현장실습관리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부터는 실습장 사고가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보상 체계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제정된 현장교수 대상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선정된 실습장이 대거 변경되고, 우수 실습장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의 ‘실습장 정예화’와, 학생 실습비

지원 확대, 실습 중 월차 및 병가제도 신설을 통한 ‘실습생 처우개선’방안 역시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또 이듬해인 2027년부터는 ‘학기별 실습장 선택제’를 실시하고자, 경영체 실습장의 저예화와 기관 실습장 확보, 대학 실습장의 확충, 추가적으로 교내 실습 프로그램의 신규 제작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2026년 장기현장실습 협정식이 2월에 예정된 가운데, 학교는 실습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실습안전장비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2학년을 대상으로 ‘실습안전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상 빈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고려해 신규 장비 품목을 선정·구매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무릎·허리 보호대, 방진마스크,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 실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장비를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실습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전공별 맞춤형 장비 구성도 검토 중이며, 추후 학생 사용 후기와 개선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실습생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월차 및 병가 제도 신설 역시 학생 처우 개선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장기현장실습에 필요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게시판(장기현장실습-공지사항)에서 ‘장기현장실습 길잡이’, ‘착안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습 중 고충·안전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대학생활 게시판(장기현장실습-참고자료)에 마련되어 있으니 실습 중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장기현장실습은 많은 학생들에게 농업 현장의 현실을 직접 느끼고, 진정한 ‘나만의 농업’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희생과 위험을 전제로 해서도, 누군가의 아픔으로 완성되어서도 안 된다. 학교가 추진하는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더 안전하게,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책임 있게. 앞으로 이 개선대책들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문지민 편집장 dream_jimmy@naver.com

“여기 2학년 있어요!” 식작&원시전공 실습생의 하루

#실습중 #2학년 #저_여기있어요 #remember_me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실습으로 교내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전국각지로 떠난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학교 내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기도 한다. 본 기자는 학년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실습 중인 2학년 학생 두 명을 인터뷰하고, 그 일상을 기사로 공유하려 한다. 그럼 지금부터 최우인(식량작물전공 24학번), 김진호 실습생(원예시스템환경전공 24학번)의 자기소개부터 일상과 느낀 점까지, 먼 곳에서 실습생들은 각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들여보자.

Q1: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인: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번 식량작물전공 최우인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요식업에 종사했고, 직접 지은 농산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한농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산업의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예환경시스템전공 24학번 김진호입니다!

Q2: 실습하고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인: 제가 실습하고 있는 곳은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노무라농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상추(레터스), 청경채(코마츠나), 수채(미즈나), 시금치(호렌조), 옥수수(도우 모로코시), 쌀(오코메), 공심채(쿠신사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잎채소는 작기가 빨라 연간 3~4번씩 수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현장교수님께서는 원하는 작물을 키우는 농가가 있다면 견학을 보내 주기도 하신답니다.

진호: 저는 3월부터 6월까지 전북 김제시에 있는 ‘더하우스 아침에딸기’ 농장에서 문성우 현장 교수님께 딸기와 토마토의 육묘와 전반적인 생육 관리 실습을 받았고, 지금은 7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완주시에 있는 원예특작 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에서 이혜진 연구사님의 배추연구를 보조하고 있어요. 제 실습장이 반복작업만 하던 농장에서 연구기관으로 바뀌어서 제게 어렵긴 해도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Q3: 평소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우인: 하루 일과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요즘에는 날이 더워서 새벽 3시에 일어나 5시에 출근합니다. 농장의 주 작물이 양상추여서 저는 주로 양상추와 청경채, 수채의 정식과 수확 작업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 1시에 퇴근하면 자유시간입니다. 보통은 운동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주말에는 같이 실

습 온 비즈니스 전공 김재우 학우와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서 일본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즐겁게 보내요. **진호:** 아침 6시에 기상해 아침 밥을 먹고 8시 40분까지 출근하면 제 담당 교수님과 하루일과에 대해 짧게 면담을 갖습니다. 제 업무는 배추 생육조사여서 배추 싹털 온실로 가 각기 다른 약제가 처리된 배추의 뿌리돌림, 색발현, 엽수, 엽면적 등의 생육 상태와 환경 조건을 기록하면 됩니다. 배추가 다 자라면 새로 정식하고 다시 싹털을 준비하는 작업도 해요.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취미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냅니다.



파종 및 연구 중인 김진호 실습생(우측)
(출처-김진호 실습생)



연구소 내 딸기재배 현장
(출처-김진호 실습생)

Q4: 실습 종료 후 계획이 있나요?
우인: 제가 내년 1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개강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1학년 때 배웠던 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개강 후 제 자신이 학교 강의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경험을 쌓기 위해 다른 농가에서 일을 배움과 동시에 학교에서 4학년 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진호: 장기적인 목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려 합니다. 졸업 전까지 창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은 복잡한 중간 유통의 과정을 최소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유통 사업입니다. 농업계의 ‘무신사’라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네요. 생산자는 1차 생산품 말고도 2차 가공품도 제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신선한 상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사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Q5: 실습 초반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변화가 있나요?
우인: 사실 제가 지금까지 농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는 일본에서 하게 될 실습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무라 현장교수님과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일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초, 양상추 모종을 심을 때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인상 깊었던 건, 노무라 농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작물을 홍보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옥수수를 파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단순히 공판장에 납품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만의 특별한 판로를 개척하여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작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실습을 하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외면과 내면 모두 커다란 성장을 했다고 느낍니다.

진호: 2학년 때 실습하면서 이른 중진적으로 배웠던 1학년 때의 지식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요즘에는 그 지식을 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보강할 수 있는지와 같이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미래를 꿈꿨다면 2학년인 지금은 미래를 향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습이 힘들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실습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고, 실습장만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실습이 유익하게 느껴집니다.

Q6: 학교가 그리운가요?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인: 네, 학교와 학우들이 그리웁습니다. 1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식량작물전공 학우들이 모여서 풋살을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재미있었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학우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처럼

풋살을 하고, 웃고,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진호:** 학교는 매우 그림고, 항상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요. 특히 같은 층에 살던 전공 친구들과 밤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야식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수다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얼른 학교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최근 실습장을 변경한 원예시스템전공 김진호 학우는 낯선 환경에서도 실습의 장점에 집중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애착을 갖고, 배우는 지식들을 사업과 연결 지어 생각하면서 배움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질의응답에서 드러나는 듯 했다. 그는 ‘1학년 때는 미래를 꿈꿨다면 2학년인 지금은 미래를 향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언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또한, 일본 노무라농원에서 실습을 하고있는 식량작물전공 최우인 학우는 이른 오전에는 밭에서의 실습을, 늦은 오후에는 운동과 기타를 연주하고, 낯선 국가의 문화양식을 탐닉하며 일과 휴식 둘 다 챙기는 듯한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나 이처럼, 10월 31일자로 장기현장실습 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며 2학년 학우들의 2025년도도 마무리되었다. 계절학기 등, 아직 기간이 끝나지않은 2학년 학우들이 안전하고 뜻깊은 실습과정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와 자신의 꿈을 펼칠길 응원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최우인 학우와 노무라 농원 일동
(출처-최우인 실습생)

정정아 실습부장
jja050915@naver.com

학우들의 꿈과 노력이 담긴 제11회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 수상현장
(출처-학교 홈페이지)

지난 9월 22일 본교에서 열린 ‘2025년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의 수상자가 10월 27일 발표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408명의 2학년 실습생 중 장기현장실습을 6개월 이상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1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대상의 주인공은 농수산비즈니스 전공 이〇아 학우로,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금상에는 버섯 이〇형, 산업공총 최〇하, 농수산푸드테크 김〇준, 산림 송〇희 학우가 선정되어 각각 4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은상 수상자로는 산림 이〇원, 가금 조〇정, 화훼 김〇빛, 산업공총 목〇민 학우가 이름을 올렸다. 동상에는 원예환경시스템 변〇영, 산업공총 권〇석, 말산업반려동물 최〇규, 화훼 신〇아 학우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농수산비즈니스 이〇아, 농수산푸드테크 차〇진, 원예환경시스템 유〇민, 화훼 김〇주, 산업공총 박〇〇, 식량작물 정〇아, 농수산비즈니스 조〇나 학우가 수상했다.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는 매년 학생들의 관심을 받아온 대회이다. 특히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 외에도 총장상 수여와 국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 실습생들이 더욱 의미 있는 실습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콘테스트 수상자들은 실습 시작일부터 6개월 이상의 일지를 매일 상세하게 기록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심사는 1차 기초심사와 2차 최종심사로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학부별 실습수행 성실도와 일지 충실도를 평가했다. 교무처가 주관한 2차 최종심사에서는 실습성과, 작성 충실도, 구성체계, 파급효과,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습일지 작성은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수상자들은 8개월간의 실습 과정



동상 수상자 권용석 실습생(좌)과 이주명 총장(우)
(출처-학교 홈페이지)

을 되돌아보고, 향후 진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축적했다. 매일 실습과 일지 작성을 병행한 수상자들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주명 총장은 축하사에서 “제11회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실습일지로 선정된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하며, “1년간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기록한 실습일지는 수상자 여러분의 성과일 뿐 아니라 후배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한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미래 한국 농어업을 선도할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동상을 수상한 권용석 실습생은 이번 수상에 대해 “실습일지는 단지 상을 받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나아갈 창업의 길에 든든한 자산이 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실습일지 작성에 대한 조언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항상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덕분에 기록을 다시 보지 않아도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실습하고 매일 작성하는 것, 그리고 휴무일에는 창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선배들의 사례를 듣는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색으로 구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습을 마무리하며 그는 “부족함이 많았을 저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현장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 실습생을 받은 실습지였기에 대표님과 저 모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과 안에서만큼은 최고의 실습지라고 자부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한농인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실습 기간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학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한농인으로 성장해 작게는 과에서, 크게는 학교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2026년 농업 예산 확정...정부, '기술 혁신과 농촌 민생 안정' 두 축으로 투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농업 예산을 확정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 방향은 ▲식량안보 및 물가 안정과 같은 단기 민생 현안 대응 ▲AI·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 기술 투자 ▲청년층 유입과 농촌 정주 지원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한 안전대책 등으로 정리된다.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농업 산업의 구조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도 현장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려는 전략이 담긴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6.9%, 약 1조 2934억 원 증가한 20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곡물 수급 안정과 가격 변동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 청년농 육성, 지역 균형 성장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쌀·밀·콩 등 전략작물 직불을 기존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면적도 17.6만ha에서 20.5만ha로 늘린다. 신규 품목도 추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에 29억 원,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와 유통 기반 마련에 1,532억 원에서 1,750억 원으로 증액이 반영됐다. 농산물 비축과 시장 공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APC 확대 또한 추진된다. 청년농 지원도 강화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고, 임산부·영유아 대상 식품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 정책 등이 포함됐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예산은 보다 중장기적 성격의 투자로 구성됐다. 2026년 전체 예산은 1조 1,325억 원, 전년 대비 6.7%(710억 원 증액)이며,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6,238억 원, 전년 대비 10.0%(566억 원 증가)다. 정부는 이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자동화 농기계, 병해충 예측·진단 기술, 그린바이오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생육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농업의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농가 실증 지원, 지역 농업기술센터 협력, 스마트 영농 교육과 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도 자원이 투입된다. 농진청은 고온·가뭄·병해충 등 기상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대응

작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1,516억 원, 고위험 병해충 방제 사업에 987억 원,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한 지역 농업 활성화 및 농촌 활력화 사업에 1,94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기계 안전, 축산업 환경 개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로컬푸드 확대 등 생활 기반 정책도 반영됐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농업과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농진청을 미래 농업 기술과 생산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당장의 가격·공급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10년 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기술만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고, 사람이 있어도 기술이 부족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번 예산 편성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주거·창업 프로그램, 기술 실증 지원 등을 강화하면, 졸업 후 농업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및 인프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팜, 자동화 농기계, 데이터 기반 생육 관리와 같이 농진청이 확대하고 있는 기술 투자는 농업을 단순 노동 중심 산업이 아니라 기술 산업으로 바꾸는 흐름을 만든다. 이는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실습·기술이 실제 현장에 더 빨리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유통·가공·시장 확대 정책까지 함께 추진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이 생산만을 주로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브랜딩·가공·직거래·로컬푸드·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 경영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농장의 고도화 전략에서도 새로운 농업 모델 구축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결국 이번 예산은 단기적인 민생 문제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 준다. 기술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과 청년 농업인 지원이 실제 농촌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리 대학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어떻게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관련 정책이 현장과 연결된다면, 청년 농업인이 한국 농업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는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민 부원장
parksomin3131@gmail.com

청년 농식품 창업, 정책이 길을 열다.

최근 농업은 단순한 '생산'의 영역을 넘어, 가공·유통·브랜드·콘텐츠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또한 이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농식품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동시에, 6차산업화(1차 생산 + 2차 가공 + 3차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도 존재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창업은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스토리'와 경험을 판매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정부 지원사업>

현재 청년 농식품 창업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연계해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년식품창업패키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예비 0.9백, 초기 1.8백)까지 지원하며, 연구·시제품 제작·브랜딩·유통 교육까지 통합 지원한다. 식품진흥원 내 멘토링 뿐만 아니라 MV P모형을 위한 시설장비를 제공해 제조·품질관리 교육과 실험 장비 활용도 가능하다.

②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5개 대학이 선정되어 창업 교과목, 시제품 제작비, IR(투자유치) 교육, 멘토링을 지원한다. 농수산 관련 학과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을 살린 창업 아이템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수출바우처 및 수출기반활용사업
국내 농식품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번역, 인증, 바이어 매칭, 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식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④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체험 프로그램, 관광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와 공간을 지

원한다. 지역 산업과 콘텐츠를 융합하는 창업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원료를 활용한 비건·저당·고식이섬유 제품, 발효기술을 접목한 건강식, 그리고 고시형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정부의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융합 정책과 맞물려, 데이터 기반 농식품 창업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IoT 센서로 원료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AI를 활용해 수요 예측·패키지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정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 현장에서는 자금·인증·유통의 벽이 높다. 따라서 단기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연계되어 기술→시제품→유통→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이 그 예다.

농식품 창업은 더 이상 '농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청년들이 지역 농산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며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들의 실험과 도전을 뒷받침할 때, 농업은 다시 청년의 산업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농식품 창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템 발굴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원료 공급 농가와와 상생 계약, 지역 특산물의 가치 재해석, 친환경·친지속성 중심의 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 창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전문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 결국 농식품 창업의 성공은 '혼자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될 때, 농업은 다시 한 번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정아 실습부장
jja050915@naver.com

2025년 대한민국 박람회 모음 Zip.

박람회는 한 나라와 지역의 산업·문화·기술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종합 전시의 장이다. 2025년에도 농·축·수산·식품·푸드테크 분야에서는 다양한 박람회가 열리며 산업의 흐름을 드러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신기술과 트렌드가 공개되고 정부·기업·소비자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곳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자리다.

특히 농업·식품·푸드테크 박람회는 정부의 미래 농정 비전과 스마트팜·대체식량 같은 전략이 발표되는 정책-산업-소비자의 교차점으로 기능한다. 관람객은 새로운 식품과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은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하며 다음 혁신을

준비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람회는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된다.

이번 코너는 국내 주요 박람회의 현장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농식품 산업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전한다. 다음의 기사들에서는 농·축·수·식품·푸드테크 관련 박람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박람회의 현장 속으로 빠져보자.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탐방하다!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열린 박람회에는 약 9만 8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그보다 약 2천 명 증가한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농업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아래 매년 새로운 주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 2024년에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내세웠고, 올해 주제는 ‘농업·농촌 혁신이 만드는 성장과 행복’이었다.

박람회 개최 이틀날인 26일, 본 기사를 포함한 학보사 기자단 4명은 양재동 aT센터에 도착했다. 야외 광장에는 ‘야외마켓’이 조성되어 다양한 기업의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 대학 버섯학과 20학번 졸업생 박세현 씨가 창업한 ‘머쉬앤머슬’ 부스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 내부는 관람객들로 붐볐으며, 올해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업’ 등 네 가지 특별 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올해 박람회가 ‘농업·농촌 혁신’을 강조한 이유는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 고령화와 정주 여건 악화,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현재 한국 농업이 마주한 핵심 이슈들을 반영한 결과다.

기자단은 제공된 안내 팸플릿의 ‘청년·예비청년농 Level-up 코스(K-농업혁신관-스마트축산관-올해의 농산물관-K-푸드관-청년창업관-농촌라이프관)’를 따라 각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가장 미래지향적 변화를 엿볼 수 있었던 곳은 단연 ‘K-농업혁신관’이었다. 이곳에는 Agri-Food Tech, K-FOOD+ 등 농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 아이템이 한자리에 모였다. 총 12개의 부스 중에서도 특히 돋보인 것은 대동의 ‘AI 자율주행 수확·운반로봇’이었다. 농업 특화 AI를 기반으로 작업자 인식, 최적 경로 자율주행, 장애물 감지, 비상정지까지 구현 가능한 로봇으로, 현장에서 직접 시연돼 미래 농업기술의 진화를 실감하게 했다.

‘스마트 축산관’의 경우 ICT를 활용해 축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파머스젠즈가 선보인 ‘AI 기반 목걸이형 센서’는 송아지부터 번식우까지 개체별 포유량, 사료 섭취, 기침 횟수, 정확한 발정 탐지, 분만 알림 등 건강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었다. 기존 집단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개체 중심의 스마트 관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남겼다.

농업의 오늘을 ‘보다’, 내일을 ‘그리다’ 나주와 서울 농업박람회 현장

농업이 단지 ‘밭에서 땀 흘리는 일’로만 보이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양재동과 나주에서 열린 두 농업박람회는 스마트팜부터 로컬푸드, 체험관까지 농업의 ‘지금’과 ‘내일’을 한눈에 보여줬다.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이 두 현장을 비교해 직접 둘러본 결과, 농업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가까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세계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서울과 나주에서 펼쳐진 박람회의 주요 전시·체험 내용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나주에서 만난 ‘미래농업’]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일원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는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을 키우는 K-농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는 첨단 농기계와 로봇이 야외 전시장과 실내관을 넘나들며 전시되었는데, 특히 자율작업 콤바인이나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생육 시연이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 농업관’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밀재배 시스템과 기후위기 대응형 작물 재배 설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학생으로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체험·투어’와 ‘청년창농업’ 코너였다. VR을 통해 작물 재배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귀농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부스가 마련돼 있기도 했다. 농업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농계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창업 사례와 시행착오를 솔직히 나누는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행사장 외곽에 마련된 ‘로컬푸드 마켓’에서는 나주 특산물을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 양재동에서 본 ‘생활 속 농업’]

한편,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농촌 혁신이 만드는 성장과 행복”이라는 주제 아래 농업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 짓는 다양한 전시·체험을 담았다. 이 박람회에서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 네 가지 주제관이 마련되었고, 감자 심기 체험부터 떡 만들기, 꽃꽂이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농업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소개된다는 점도 신선했다. 도시 텃밭 모델이 전시돼 ‘식물이 내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감각을 주기도 하였다. ‘도시 농업관’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농업을 보여주며 도시 속에서 쉽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다양한 청년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농업박람회에서는,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이름과 로고, 부스 연출 방식까지 모두가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은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두 박람회에서 얻은 시사점]

두 박람회를 비교하면, 나주는 첨단 기술과 농업 혁신 중심의 비전형 행사였고, 서울은 도시민과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사였다. 이로 인해 우리 학교 학생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 세 가지다.

박람회에 함께한 김민기 학생(채소전공, 23학번)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야로 ‘식량안보관’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전시물이었던 ‘미래 농산물 가격표’가 실제보다 훨씬 비싸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자급률이 낮아져 수입 의존이 커질 경우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관심 있는 작목이 고추인데, 고추 기반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수출형 제품들을 보며 시야가 넓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의 관념을 뒤바꿔 ‘김치맛 과자’, ‘고추장잼’ 등 수출을 고려한 퓨전 제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익숙한 것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참여하는 행사임에도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변화하고 확장하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우들도 내년에 직접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문지민 편집장
dream_jimmy@naver.com

첫째, 체험 요소가 많은 행사일수록 학습 효과와 흥미가 커진다. 나주 박람회의 로봇 전시나 정밀재배 설비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체험을 유도했다.

둘째, 지역 특성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나주는 지역 관광과 연계해 농업체험과 문화체험이 함께 이루어졌고, 이는 농업이 지역 생태계·문화와 결합했을 때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줬다.

셋째, 학생의 눈높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서울 박람회는 텃밭 만들기나 VR 체험처럼 ‘체험하고 찍고 공유하기’에 적합했기에 SNS 세대인 학생에게 적합한 이벤트 구성이었다. 우리 학교도 이런 행사에서 단순 참관을 넘어 ‘기획·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농업’이라는 키워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이번 두 박람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행사 그 이상이었다. 실제 박람회를 다녀온 뒤 느낀 것은 농업이 우리 일상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팜에서부터 도시 텃밭까지, 농업은 기술이자 문화이며 삶이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박람회 참여·현장 학습을 통해 배움을 넓히고,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진로 탐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도 ‘씨앗이 자라 수확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느껴보면 어떨까? 농업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나은빈 기자
gfriend1202@naver.com

‘2025 농생명 진로 미니 페스타’…초등학생부터 청년농까지, 농업의 미래를 잇다



‘2025 농생명 진로 미니 페스타’ 토크 콘서트 패널과 참관객들 (출처-이유빈 사회부장)

11월 15일 토요일, 국립농업과학관 1층 로비에서 ‘2025 농생명 진로 미니 페스타’가 소규모로 개최됐다. 행사 규모는 ‘미니 페스타’라는 이름처럼 아담했으며, 주로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은 쑥 향낭 만들기 치유 체험이었다. 참가자들은 말린 쑥을 작은 주머니에 담고 쑥 향수를 뿌려 향낭을 완성했다. 쑥은 곰팡이 제거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오는 식물로 여겨졌다는 설명도 함께 전해졌다. 단순한 제작 과정이었지만, 쑥의 역사와 효능을 배우고 향낭을 선물할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경험을 통해 많은 참가자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후에는 청년 농부 5명이 무대에 올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강성휘 커넥팅팜 대표, 선무영 전춘바이브 대표, 이건희 뽕농 대표, 최혜람 프레시앙 대표, 이현호 A급 농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자신들의 창업 과정과 현재의 농업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참관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청년 농부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도전 사례를 들으며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체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토크 콘서트가 종료된 뒤에도 로비에서 고민 상담이 계속될 만큼 패널들은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널 다섯 명 모두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한곳에서 만나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하며 농업 청년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진로 미니 페스타는 규모는 작았지만, 초등학생에게는 농생명 분야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청년에게는 농업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유빈 사회부장
t22ntitan@naver.com

2025 익산 농업기계박람회

농업기술의 혁신을 만나다!



박람회 내 전시된 농기계
(출처-김한별 기자)

익산에서 열린 '2025 익산 농업기계박람회'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되며, 농촌을 향한 정책 방향과 산업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행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기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 행사 자료와 참가자 후기를 바탕으로 박람회의 의미와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행사 분위기와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익산 농업기계박람회는 국내외 다양한 농기계 브랜드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해마다 최신 농업 장비와 혁신 기술이 소개된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팜과 자동화 장비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으며, 노동력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 기술들이 주목받았다. 드론 방제기, 자율주행 트랙터,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 시스템 등 실제 농업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전시되었다는 후기가 많았다. 현장을 방문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순한 기계 전시를 넘어 직접 시연, 제품 비교, 전문가 상담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청년 농업인들은 기술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놀라움을 표했으며, 중·장년층 농업인들은 익숙한 기존 장비와 새 기술을 비교하며 농장에 어떤 도입이 적합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김한별 기자
zxkts0123@naver.com

또한 박람회는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 관람객에게도 개방되어 농업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특히 농업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었다는 후기가 이어졌으며, 농업이 단순 노동 중심 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 확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접 조사 과정에서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기계 업체와 농업인 간 교류는 물론, 행사 기간 동안 현지 숙박·식당·카페가 활기를 띠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익산 농업기계박람회는 농업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비교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는 점이 여러 정보와 후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졌다. 직접 참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여러 자료와 참가자 경험담을 바탕으로 행사를 간접적으로 접해 보니 농업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으며, 다음 기회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글이 행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간단한 안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 박람회와 산업 현장을 소개하는 글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더 생동감 있는 취재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기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잇다



기업 'TYM'의 농기계
(출처-최O애 학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는 첨단 기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00여 개 농기계 및 기자재 업체가 참가해 4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전시 구역은 '스마트농기계존'이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GPS 기반 정밀작업 시스템, 드론 살포 기술 등 최신 장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관계자들은 "정밀 농업의 확산으로 생산성과 노동 효율이 함께 향상되고 있다"며, 기술의 대중화가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기계 전시뿐 아니라 시설원예, 수출 농업, 스마트팜 구축 기술 세미나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농업 관련 학과 학생과 예비 창업자들이 대거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며, 각 부스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과 장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올해 처음 신설된 '친환경·치유농업 체험존'이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유기농 토양 관리 기술, 도시농업용 소형 장비, 정원용 자동급수 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농업이 생산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체감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기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8ha 규모의 박람회장 곳곳엔 농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살피느라 분주했다. 전북도·익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이날부터 7일까지 열린다.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행사에 농기계업체 206곳이 참가해 밭농업기계, 과수·원예·축산기계, 농기계 부품 등 400여개 기종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 개막식엔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김신길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과장,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안지사키라 마르티네스 페헤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에멜리 제사야 짐바브웨 문화부 차관 등도 함께했다.

심포지엄·세미나·시연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열렸다. 첫날엔 농기계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작업·전기 농기계 안전성 확보에 관한 '농업기계 검정 설명회'가 진행됐고, 5일엔 한국농업기계학회가 '피치컬 AI 기반 스마트농업 기계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농산업분야에서 AI·로봇의 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수출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시설원예 수출활성화 세미나'가 열렸다.

최선영 기자
ctd8816@naver.com

“농식품 미래, 스타트업에서 찾다”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전시
(출처-이준원 워크부장)

지난 7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는 청년 창업가와 농식품 벤처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과 식품 산업을 결합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장으로, 우리 대학 학생 기자단 역시 현장을 찾아 농식품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청년 농식품 벤처창업

강연에서는 세 명의 대표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창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번째 연사인 주식회사 휴밀의 김경환 대표는 식물성 식품원료 개발자로서 대체 단백질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는 앞으로 식품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며, 휴밀이 추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로 연단에 선 플로우팜 아야름 대표는 아쿠아포닉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기술을 설명했다. 물과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순환시켜 농업과 수산양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 농업 모델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Vibe의 김국연 대표는 '100만 구독자 양봉 유튜버'로 잘 알려진 청년 창업가다. 그는 단순한 양봉 생산을 넘어 콘텐츠와 브랜드의 힘을 활용한 새로운 양봉 산업 모델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양봉은 단순히 꿀 생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Vibe 브랜드를 성장시킨 경험담을 공유했다.

강연 외에도 행사장에는 다양한 농식품 스타트업 부스가 마련되어 최신 기술이 전시되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곳은 Firmit이었다.

Firmit은 에너지 절감형 식물공장을 개발한 기업으로, 기존 스마트팜 시스템 대비 전력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도심 환경이나 기후 제약이 심한 지역에서 도 안정적으로 작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그 외에도 친환경 포장재, 기능성 식품, 디지털 농업 솔루션을 제시한 스타트업 부스들이 방문객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농식품 산업이 기술 혁신과 ESG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이번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는 농업과 식품 산업이 단순한 1차 생산 단계를 넘어 첨단 기술, 지속가능성,

브랜드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도전은 농식품 산업이 지닌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하게 만들었다.

박람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업에서 배우던 개념들이 실제 창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로 구현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식품 산업은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며, 농식품 창업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실험과 도전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원 워크부장
jwgreg@naver.com

2025 국제종자박람회, 오감으로 즐기는 ‘씨앗의 축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주관 하에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박람회는 ‘씨앗 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열려 종자 산업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조명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97개의 종자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국내외 우수 품종, 농기자재, 육종 시스템 등 다양한 농업 기술을 선보였다. 핵심 공간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51작물 482개 품종이 재배·전시되어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과 특성을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었다.

임구에 조성된 코스모스밭은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며 관람객들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다. 유리온실에서는 토마토가 수경재배 방식으로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 토양이 아닌 포대 속 배지에서 자라는 모습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

았다. 야외에서는 하얀 가지와 피클용 짧은 오이 등 평소 보기 어려운 작물들이 전시돼 흥미를 더했다. 특히 고구마 수확 체험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5천 원을 내면 봉투 가득 고구마를 켤 수 있었고, 같은 금액의 푸드트럭 쿠폰이 제공돼 간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었다. 팽벌 아래 직접 호미질을 하며 수확의 기쁨을 맛본 방문객들은 무거운 고구마 봉투를 들고 가면서 웃음 지었다.

한편 행사장 내 홍보 부스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엘아이엔티(L-INT)’가 참여해 ‘감귤학교 1기 모집’을 홍보하며 감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했다. 현장을 찾은 한 학우는 “논과 손이 즐거운 행사였다”며 “농업이 이렇게 다채롭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유빈 사회부장
t22ntitan@naver.com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시스템을 중심으로, 축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자리였다.

국내외 233개 기업이 참여해 794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네덜란드·벨기에 등 해외 10개국 45개 업체도 동참해 글로벌 축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전시 품목은 AI·ICT 기반 스마트 축산 시스템, 친환경 분뇨 처리 기술, 축산 기자재와 사료 및 약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축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눈길을 끈 전시품목으로는 축사 환경을 컴퓨터와 연동해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뇨를 활용해 개발된 친환경 약품, 퇴비화 시설이 있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순환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행사 현장에는 학술 세미나와 경연대회,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였다.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최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하며 축산업이 단순한 생산의 영역을 넘어, 생활 속 친환경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 학교 축산학부 학생들 역시 박람회 현장을 찾아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중 한우전공 3학년 윤성재 학생은 “축산에 필요한 자재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AI와 연계된 시스템이나 친환경 분뇨 처리 기술이 특히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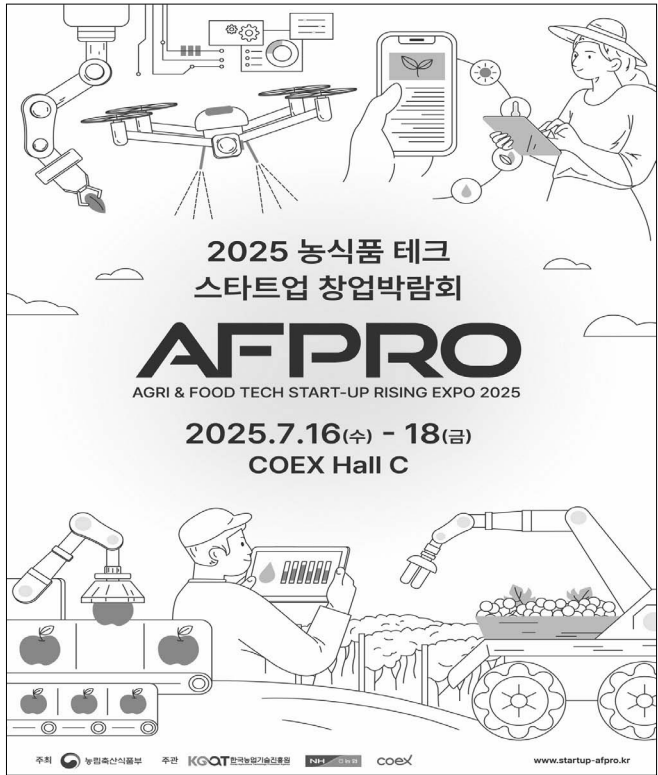
에 띄었고, 기업 대표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소 사육 환경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키우소’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자인 졸업생 선배를 박람회에서 만나 뵈어 앱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키우소’는 사육 통계 목장 성적을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최신 사육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서비스형 앱으로, 윤성재 학생은 “이미 가입자가 1만 8천 명을 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 대다수의 이용자가 한우 사육에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기술과 제품 전시 외에도 서비스 앱에 관련된 부스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산업과 학문, 그리고 현장 경험이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 축산과 친환경 기술, 그리고 미래 인재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지며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확인된 가능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대한다.

최선영 기자
ctd8816@naver.com

맛보고 체험하며 만난 농식품 산업의 미래, ‘AFPRO 2025’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 스타트업 박람회 ‘AFPRO 2025’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애그테크(AgTech), 푸드테크(FoodTech), 그린바이오(Green Bio) 분야의 최신 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한자리에 모았다.



푸드테크 분야 부스에서 진행된 배양육 시연
(출처·이유빈 사회부장)

박람회에는 국내외 대기업과 투자사, 유통사,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해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 전시 품목은 스마트팜·AI·클라우드·무인기

등 애그테크, 대체식품·간편식·외식 서비스 등 푸드테크, 미생물·천연물·곤충·종자 등 그린바이오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농식품 산업의 최신 기술과 ESG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시식과 체험 코너가 풍성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하이브리드 배양육 부스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일부 관람객은 “일반 고기와 맛이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면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학생은 “짜파게티 10개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식용 곤충 부스도 관심을 모았다. 말린 밀웜은 외형상 거부감이 적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호평을 받았다. 일부 제품은 분말 형태로 가공돼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했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농수산 비즈니스와 문지수 학생은 “AFPRO는 농식품 분야 최신 기술과 창업 트렌드를 한눈에 직접 체험할 기회였다”라며 “스마트팜, 푸드테크, 유통 플랫폼 부스를 둘러보고 강연과 네트워킹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박람회 부스 내 전시된 제품
(출처·이유빈 사회부장)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예비 창업자와 산업 관계자 간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제품 시연, 기술 체험, 창업 전략 상담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체감했다.

이유빈 사회부장
t22ntitan@naver.com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목적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 제도는 농민만이 아닌 모든 농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사회 내 소비를 늘리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을 거주 기준으로 설정한 만큼, 농민에게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증가는 지역 내 자금이 돌게 되면서, 정기적인 지원금은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생활안정망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범위가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농민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대부분 연 60만~12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가되면 일부 지역의 농민은 두 제도를 동시에 받게 되고, 농민수당이 없는 군의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도움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담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촌 지역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구 유출과 농촌 공동화, 농업인력 부족, 청년 정착 실패 등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농촌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인 발전 전략과 결합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 안정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했고, 캐나다·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가 지속적인 재원 마련 문제에 부딪혀 정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장기적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다른 정책 실험 과정이자 도전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기적 지원 효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될 때,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은미 기자
egim6320@gmail.com

화마(火魔), 산불 재해를 넘어 미래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아진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대형 산불(山火)’은 이제 ‘재난의 일상화’라는 섬뜩한 현실을 한국 농촌 사회에 드리우고 있다.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이 통제 불가능한 불길은 평생을 일궈온 농업 공동체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국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강원 동해안 및 영남 지역의 산불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9년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역대급 규모의 산불은 수천 헥타르(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길은 산림을 넘어 농경지와 마을을 덮치며 농축산 시설, 고가 농기계, 다년생 작물 등 농업 부문에 막대한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농민들의 재산과 생계, 그리고 희망까지 앗아가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제 ‘화마(火魔)’, 산불 재해에 무너지는 농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의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최근 몇 년간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들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 우리 농업 생태계와 농촌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막대한 피해 규모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참상은 숫자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약 2,51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2년 울진 및 삼척 산불은 무려 9,0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겼다.

그리고 최근 2025년 경북 지역을 강타한 역대급 산불은 수천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불길은 숲을 넘어 농경지와 마을까지 덮치면서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특히 경북 산불의 경우, 농축산 분야에서만 1,7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추산되었고, 트랙터, 경운기 등 1만 대가 넘는 농기계가들이 한순간에 소실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잿더미가 되어 버렸지만,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은 더욱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시설하우스와 비닐하우스는 고온의 불길에 비닐과 골조가 녹거나 전소되었고, 내부의 사과, 복숭아, 자두 등 소중한 과수목들도 불에 타버렸다. 특히 시설 원예 농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높아서, 한번 피해를 입으면 재건하는 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과수목은 성목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복구 기간이 매우 길고, 설상가상으로 유실된 토양은 다시 나무를 심더라도 정상적인 생육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저온 저장고, 농막 같은 핵심 농업 생산 시설 수천 동이 전소되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돼 버렸다.

더 나아가, 산불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고 넓게 농업 생

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산불로 인한 연기 노출과 밀원수의 소실은 양봉 업계에 치명타를 입힌다. 이는 결국 과일 수정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농업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다. 또한, 사과나 송이버섯처럼 복구에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특화 작물 주산지의 기반이 붕괴되면, 해당 농산물의 장기적인 공급 차질과 불안정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물론 우리 농가 전체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산림의 초목이 사라지면 비가 올 때 산사태와 토양 유실이 심화되고, 불에 탄 토양은 양분이 고갈되고 pH가 변하며 기능이 저하되어 장기간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화재로 생성된 재와 유기물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하천과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건, 농업용수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해 복구 지원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그 규모나 현실성은 피해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농기계나 시설하우스, 과수목 등에 대한 지원 단가는 실제 시장 구매 가격이나 재건축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복잡하고 느린 행정 절차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농가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 농촌 사회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고령화된 농민들은 수십 년이 걸릴 복구 기간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산불 피해를 단순히 일회성 ‘재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처럼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농민들의 재산과 생계는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앗아가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화마(火魔)’, 산불 재해에 무너지는 농업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의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더욱 빈번해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우리는 식량 안보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농촌 공동체 전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산불에 무릎 꿇는 농업이 아닌, 어떠한 재난에도 굳건히 버티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결단과 전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연주 기자
yeonju212238@naver.com

“산불이 휩쓸고, 폭우가 덮쳤다…” 농업은 지금 기후와 싸우는 중

2025년 3월, 경북 북부 산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과수원과 농기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늘음을 닦아내던 농민들은 여름이 되자 또 다른 재난과 마주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전남·충남 일대의 논밭을 몰바다로 만든 것이다. 올해만 두 차례, 농촌은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시기와 형태는 달랐지만 원인은 같았다. 기후변화다.

반복되는 재난, 그 중심에 선 농촌

전라북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내 232개 농가에서 15만 4,149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 닭 13만 4,781마리, 오리 1만 4,909마리, 돼지 4,459마리가 폐사하거나 실종됐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부안 등 전역에서 축사 붕괴와 농경지 침수가 잇따랐다.

전체 피해 마릿수는 2024년 대비 53.8% 감소했으나, 오리 피해는 오히려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로, 2025-07-21】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축사와 배수시설, 사전 예방 체계 부족, 사후 복구 중심의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농촌은 매년 이상기후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현재 대응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적응형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단기적으로는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면 농가의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해법은 '기후 적응형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병해충·침수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 △침수 위험 지역의 고지대 전환 △빗물 저장·재활용 등 물 순환형 재배 시스템 구축 △농촌용수 개발과 스마트 관개 등 기후 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평가다.

기후 위기, 이제는 ‘적응’이 답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농촌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버틸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난을 힘겹게 견디는 농업이 아니라, 재난에도 살아남는 농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유빈 사회부장

t22ntitan@naver.com

AI 혁명: 스마트팜 시대 시작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농업 인구는 급격한 고령화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이농 현상으로 농촌의 인력은 매년 고갈되고 있다. 농작업의 높은 노동 강도와 반복적인 특성은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는 농업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예측할 수 없는 가뭄과 집중호우는 농작물 작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농산물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해법을 찾고, 위기를 기회 삼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변곡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팜은 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AI 농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하는 AI 기반 환경 제어 기술은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최적화하여 작물의 성장 환경을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농가에서는 수작업으로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줄어들어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어 환경 보호 및 식량 생산 등 농업 안정화에 이바지한다.

둘째, 스마트 농업 로봇이 도입되고 있다. 자율주행을 통한 작물의 생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 심지어 해충 방제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들이 국내 농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과수원 제초 로봇, 스마트 온실 방제 로봇 등은 농작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밀한 관리로 인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AI가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고품질 생산 및 노동 효율성 증대 - 전남 담양군 딸기 농가

딸기 재배는 온실 환경 관리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확은 높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 발생 예측과 대응이 중요하다. 전남 담양의 한 딸기 농가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일사량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

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특정 조건에서는 창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거나, 보광등을 켜는 등 정밀한 환경 제어가 가능해졌다. 이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도 베테랑처럼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AI는 딸기의 생육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언제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할지, 수확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 복잡한 환경 제어 업무를 AI가 대신 하면서 농업인의 육체적 노동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농업인은 더 중요한 경영 판단이나 마케팅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농장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AI 스마트팜 도입 후, 이 농가에서는 딸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품성이 향상되었으며, 단위 면적당 소득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속에서도 AI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병해충 예측 및 방제, 그리고 생산 안정화 - 경북 상주시 토마토 농가

토마토는 재배 중 다양한 병해충에 취약하며, 병 발생 시 수확량과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진단하는 데 많은 경험과 시간이 소요된다. 경북 상주의 일부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에서는 AI 기반의 병해충 예측 및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AI는 온실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토마토 잎의 색깔 변화, 반점 형성 등 미세한 징후들을 감지하고 분석한다. 기존의 병해충 발생 데이터와 연계하여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농업인에게 알림을 보낸다. 병 발생이 예상되거나 진단될 경우, AI는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추천하거나, 따라서는 소형 로봇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정밀하게 약제를 살포하도록 지시한다. 넓은 농장을 일일이 다니며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병을 진단하는 것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AI가 이 역할을 대신하면서 농업인의 관찰 및 진단 노동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전문가처럼 병해충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 실패 위험이 감소한다. AI 기반의 병해충 예측 및 방제 시스템 도입 후, 농가에서는 병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어 수확량이 안정화되고 품질이 향상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생육 환경 제어를 활용한 안정적인 고당도 멜론 생산 - 충북 청주 멜론 농가

고품질 멜론 재배는 온도, 습도, 양분, 햇빛 등 매우 까다로운 환경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경험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특히 고당도 멜론은 일교차 등 특정 기후 조건이 필요하기도 하다. AI 기반의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멜론의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는 온실 내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발자취를 쫓다 : 말산업학과 5기 박세진 졸업생

어느덧 우리 학교가 개교한 지도 29년이 흘렀다. 경기도 화성시에 우리 학교의 전신인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할 당시, 6개 학과로 시작해 2025년 현재 4개 학부, 18개 전공으로 늘어난 만큼, 다양한 농축수산업에 우리 졸업생들이 널리 퍼져있다. 2024년 기준 우리 학교 졸업생은 7,4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개교 당시 학년 당 200여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여 500여명으로 확대된 만큼,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이런 기사에서는, 지난 2013년 조경학과와 함께 신설된 '말산업학과'의 5기 졸업생, 박세진을 만나보자.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경산에서 포도 농사와 위하브 농업법인회사(Weharv.)에서 이사를 맡은 말산업학과 5기 졸업생, 박세진입니다. 2025년 경산 4-H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도 회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2: 위하브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을 하나요?

A2: 저희 위하브 농업회사법인(Weharv.)은 소멸 위기 지역인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터를 잡고, 청년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활력의 불씨를 키워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복숭아와 포도를 재배하며, 생산부터 선별·포장·판매까지 직접 책임지는 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하브(Weharv.)라는 이름에는 '최고의 것을 수확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최고의 농산물을 수확한다는 의미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청년 농업인들 자체가 농촌이 길러낸 가장 값지고 귀한 수확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ESG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복숭아를 활용한 가공식품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부 상상터를 운영하며 지속 성장형 공유 플랫폼을 농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동반 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 순환형 풀링 사업을 농업 생산 전반으로 확대하여 탄소 절감과 에너지 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농산물 자원 순환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Q3: 졸업 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A3: 정말 막막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농 기반이 없는 상태로 입학 했거든요, 졸

업 후 곧장 군대에 입대를 했고, 복무 중 모아둔 군 적금을 깨며 처음 농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전 가장 고려했던 것은 “이 지역에 가장 특화된 작물이 뭘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일조량이 풍부하고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과수 및 농산물이 발달한 편입니다. 특히나 개중에서 포도, 복숭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포도를 작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4: 4-H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A4: 사실 기반이 없었던 제가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인 코스였죠. 당장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나서 가장 처음 성공해보자고 세웠던 목표였기에, 4-H에 들어가고서부터는 대인관계 확대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영농생활을 준비했답니다.

Q5: 졸업 후 영농 생활의 힘든 점이 있다면요?

A5: 아무래도 지역 적응과 자금입니다. 우선... 처음 낯선 마을에 정착하려고 하면, 주변 농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과하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라는 식으로요. 그런 부분에서 심적으로 많이 지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스스로의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농장 일이 없을 땐 일용직을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버티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며 키워낸 농작물을 알아주고,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점차 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니다.

Q6: 지금까지 한 4-H활동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 있나요?

A6: 2023년에 4-H회에 가입한 이후 열심히 참여해왔는데요.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2025년 9월에 개최된 '경상북도 4-H회 아영대회'인 것 같습니다. 본 행사에서 경상북도 도지사상을 받았거든요. 참 행복했던 기억 덕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Q7: 대학시절 경험이 지금의 활동에 영향을 있었나요?

A7: 사실 이전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솔직히 농사만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돌과구는 말산업학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멜론의 당도와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 물 공급량, 양액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조절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농업인의 개입 없이도 균일한 고당도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멜론 재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이 날씨나 경험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이 농장은 AI 스마트팜 도입 후, 멜론의 균일한 품질과 고당도 유지에 성공하여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 진입 농가도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영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지능형 스마트팜을 이용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애남농장’, ICT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 조절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이바지하는‘정글농장’ 등이 있다. 다양한 농가, 각종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스마트팜 도입이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AI 스마트팜은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의 복합적인 농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AI 기반 스마트팜이 대한민국 농업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임을 살펴봤다. 농업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고질적인 인력난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심화하는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 및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AI 스마트팜은 이러한 난관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환경 제어는 작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농작업 자동화와 지능화는 농업의 노동 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젊은 세대에게 농업을 매력적인 첨단 산업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곧 새로운 인력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제 AI 기반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거나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식량 안보 및 궁극적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I의 기능이 더해진 스마트팜은 대한민국 농업이 더 이상 힘겨운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미래를 선도할 것임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 농업은 AI라는 강력한 동반자와 함께, 보다 밝고 풍요로운 내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정연주 기자

yeonju212238@naver.com

재확 시절 배웠던 일을 10월~12월 인천 검역소에서 일을 하며 1년 임대비를 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시절 기술을 못 배웠더라면 전 조금 더 힘들게 살아왔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Q8 :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요?

A8: 현재 위하브(Weharv.)는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단순한 농산물 유통을 넘어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스토리와 철학을 담아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 APC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력 작물의 수확이 끝난 이후에도 연중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계절성에 취약한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여 최종적으로는 위하브가 청년 농업인의 거점농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Q9 : 단체적 목표가 있다면요?

A9: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산시 4-H 연합회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판로 개척·가공 사업·브랜딩과 같은 전방위적 가치사슬을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간의 협업과 조직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농업의 혁신과 창의적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농업이 지닌 수입의 불안정성과 청년 농업인의 경험 부족 문제를 함께 극복해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청년 농업인이 농사의 주체를 넘어, 농업의 기획자·혁신가·브랜드 메이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이 각자의 농장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농업 생태계를 구성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확장되는 것이 저희가 그리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문지민 편집장

dream_jimmy@naver.com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를 만나다!

이번 학보에서 소개할 졸업생은 창업농이자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용작물학과를 졸업 후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로드)에서 작두콩 재배부터 작두콩을 활용한 건강음료 및 커피 대체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향후 차세대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용작물학과를 졸업 후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작두콩을 활용한 건강음료 및 커피 대체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주) 그린로드의 대표 김지용입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재배, 가공, 유통까지 직접 참여하며 국산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1)

Q2: 대표님께서 농업(한농대)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2: 처음부터 농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고민하던 중 “직접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창업까지 연계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업 기반이 부족했던 제게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Q3: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한농대를 재학하며 얻은 점이 있다면요?

A3: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시절, ‘작두콩’이라는 작물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중 “작두콩을 돼위 가루로 만들어 약재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이 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 가보고 싶었고,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습을 통해 작두콩을 직접 재배하며 가공 실습을 진행한 경험이 현재 사업의 기반이 되었고, 농업과 식품 쪽, 농식품 가공의 융합 가능성을 체감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농업회사법인(주) 그린로드에 대한 소개와 현재 대표님이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4: 농업회사법인(주) 그린로드는 국내산 작두콩을 원료로 한 건강음료, 커피 대용 음료, 차류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으로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저는 기획과 연구개발, 원료 조달, 가공 공정 관리, 마케팅 및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린로드(Greenroad)’라는 사명에는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의 길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Q5: 작두콩으로 창업을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A5: 작두콩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신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작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저는 “수입 원두에 의존하는 커피 시장에서, 국산 작물로 대체가능 한 음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작두콩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작두콩은 카페인이 전혀 없으면서도 고소한 맛과 풍미를 지니고 있어, 건강과 기호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했습니다.

Q6: 그린로드의 대표 제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6: 그린로드의 대표 제품은 작두콩차와 작두콩 커피(브랜드명:킹빈 King Bean)입니다. 100% 국산 작두콩을 선별해 로스팅한 뒤 분쇄하여 커피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카페인이 없고,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임산부, 갱년기 여성, 비염·천식·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호응이 높습니다.

Q7: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작두콩차 생산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7: 작두콩차는 원료 선별→세척 및 건조→로스팅→분쇄→포장의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로스팅 단계는 제품의 향과 맛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으로, 볶음 온도와 시간을 세밀하게 조정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료는 계약재배 및 자체 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생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위생 인증 시설에서 이뤄집니다.

Q8: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과 보람을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8: 창업 초기에는 자금과 설비,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농업과 가공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와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브랜드의 가능성을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품개선과 유통망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승계농의 한계를 뛰어넘다, 한우전공 이용운 졸업생 인터뷰

전남 영암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오래 달리다 보면 넓은 논지 한가운데 자리한 축사에 다다른다. 입구에서는 하얀 배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낯선 손님을 반겼다. 이곳의 주인은 영암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학 한우학과 21학번 이용운 졸업생이다.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소를 접하게 되었지만, 그는 단순히 가업을 잇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직접 투자금을 마련해 축사를 매입하고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자신만의 농장’을 만들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단단한 말투와 표정에서 젊은 농장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전남 영암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24살 이용운입니다. 한우학과를 전공했고, 2024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농장은 번식우와 비육우를 함께 키우는 일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우리 대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2: 사실 고등학교 때는 요리를 전공했습니다. 취미로 요리를 해 보고 싶어서 전남조리과학고에 진학했고, 나중에는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소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농대에 진학했습니다.

Q3: 승계농으로서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어땠나요? 실습 농장에서 배울 게 많았나요?

A3: 전남 영광의 ‘자유농장’이라는 곳에서 실습했습니다. 저희 집처럼 번식과 비육을 함께 하는 농장이었고, 규모는 저희의 두 배 정도였어요. 주로 축사 청소, 발정 관찰, 송아지 분만 관리 같은 일을 하며 8개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한우는 농장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를 좁자면 사료 정도예요. 그런데 실습 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기존 농장의 사료를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소는 이미 먹던 사료에 맞춰 반추위 pH가 형성돼 있어 전환에는 시간과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장에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우리 농장에 적용해야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참고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Q4: 졸업 후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4: 제 축사 기준으로는 약 80두 정도, 전체 가족 농장까지 합하면 약 260두 정도

입니다. 가임 암소는 100~130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축사는 총 네 곳으로 분리돼 있는데, 한 곳은 비육 전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는 일이 좀 안정되면 미경산 비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곳은 아버지가 하시던 농장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Q5: 사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5: 송아지 사료 급여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빠르면 생후 3일, 보통 1주일이면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한우는 홀스타인처럼 우유 생산을 위해 개량된 품종이 아니라서, 어미젖만으로는 성장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료 적응이 빠를수록 성장률 차이가 분명해요. 저희 농장은 송아지들을 한 칸에 모아 놓아서 먼저 태어난 송아지가 사료 먹는 걸 보고 뒤에 태어난 송아지들이 따라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젓 떼기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죠.

Q6: 본인의 축사를 직접 사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

A6: 청년창업농 지원을 받아 시작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상태가 좋은 축사를 사기 어려웠고,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암은 축사 신축 규제가 강해 새로 짓기 어려워 중고 축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었어요. 2억 원짜리가 4억 원에 나오기도 합니다. 설령 운 좋게 청년창업농 대출로 좋은 축사를 구한다 한들 유지도 문제입니다. 100두만 키워도 한 달 사료비가 1,000만 원을 넘으니 소가 판매 가능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버틸 자본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힘듭니다. 이 부분이 많은 청년창업농에게 현실적인 장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Q7: 반대로 성취감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요?

A7: 제 축사를 운영한 지 1년쯤 됐을 때, 한 마리가 ‘우랑 암소’로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그 암소가 낳은 송아지들의 등급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그 암소가 ‘초우랑 암소’로 인정됐어요. 판단 기준이 까다로운데, 영암 지역 기준으로는 제 사례가 35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죠.

Q8: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운영 방식이나 계획이 있나요?

A8: 가임 암소가 약 130두인데, 초우랑 암소는 앞서 언급했던 한 마리뿐입니다. 전체 수익성으로 보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재 우랑 암소가 5마리 정도 있는데, 이 개체들을 중심으로 전문 관리 비중을 높여 더 좋은 후대를 만

Q9: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농업이란 무엇인가요?

A9: 저는 농업을 “사람과 땅이 함께 살아가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생산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미래 농업의 핵심은 부가가치화와 지속가능성이며 농업과 가공, 유통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Q10: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A10: 그린로드는 앞으로 작두콩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식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스틱형 음료, 액상차,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작물의 가치를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는 수출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Q11: 마지막으로 농식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11: 농식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라”입니다. 현장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농업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재배하고, 가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듣는 과정이 가장 큰 배움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후배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실습과 현장 경험으로 확장 시키길 바랍니다. 농업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며, 젊은 세대의 도전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다고 믿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이자, 그린로드 대표이신 김지용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식품 가공 분야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날의 그린로드가 있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하고 연구하며 성장한 대표님의 창업 이야기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며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꼭 이루어 지기를 희망해 본다. 또한 다시 한번 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지용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김현수 기자
Khs030422@naver.com

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Q9: 후배들이 학교 다니며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요?

A9: 졸업하고 나면 매일 소 보면서 지내게 될 텐데, 재학 중에도 집 축사를 자주 들러다보고 일을 돕는 걸 권합니다. 시간 될 때 동기를 축사 견학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은 취득해 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는 정액 확보를 위해 따기도 하지만, 저처럼 실질적인 부수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

Q10: 축산업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A10: 축산업의 경우 대부분 승계농일 텐데,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일하다 보면 세대 차이 때문에도 마찰이 많은 듯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 온 경력이 있으니 새로운 제안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무턱대고 ‘좋다더라’가 아니라 왜 좋은지, 효율이 어떻게 나이지는지, 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감안할지까지 근거를 갖춰 설득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조율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에서도 사료 급여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은 최대한 효율화하고, 그 시간에 소 상태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습니다. 예방접종, 물청소, 환기 등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환경 관리가 결국 농장을 살리니 환경을 좋게 해서 소를 키웠으면 좋겠네요.

인터뷰 내내 이용운 졸업생이 강조한 것은 거창한 비전보다 기본·윤리·효율이었다. 축산업 운영에 있어 현실적 난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용운 졸업생은 자신만의 방식을 체계화해 나가며 자신만의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가업을 ‘그대로 잇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농장’을 경영해 나가려는 태도는 청년 승계농·창업농 모두에게 실용적인 답이 된다. 작은 개선을 꾸준히 쌓는 그의 방식은, 영암의 한 축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박소민 기자
parksomin3131@gmail.com

한국청과(주), 우리학교 농수산인재 육성을 위해 또 1억 원 기부



한농대-한국청과 대학발전기금 기탁식
(출처-한농대 발전기금재단)

지난 9월 4일, 대학 홍보관에서 우리 학교와 한국청과(주) 간의 대학발전기금 기탁행사가 이뤄졌다. 한국청과(주) 박상현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발

전기금에 이어 올해도 1억 원을 기탁하여 총 2억 원의 발전기금을 우리 학교에 기탁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농대 이주명 총장과 한국청과(주) 박상현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학교는 한국청과(주) 기부금을 ‘한국청과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이자 수익을 활용하여 한농대의 우수 청년농어업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청과(주)는 1978년 창립을 시작으로,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물 도매법인으로서 입점한 후 농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위탁가정 명절선물 후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한농대 장학기금 지원 등 최근 3년간 총 23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한국청과(주) 박상현 대표이사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한농대에 대해 기부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책임있는 농식품 기업으로서 미래 농업 인재 양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전개

해 나갈 것이다.”라며 농어업 인재 양성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주명 총장은 “한국청과(주)의 이번 기부는 대학과 농식품 기업이 함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기부를 해주신 한국청과(주) 박상현 대표 이사님의 소중한 기부 의지를 잘 새겨서, 한국청과 장학기금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밑알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의 발전기금재단은 2019년에 설립되어, 많은 분들의 기부를 받아왔다. 재단에 기부된 기부금, 기증품 등은 학생의 장학사업, 교육, 연구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도서, 연구기자재 및 학교시설 지원, 대학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속 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 만들기 사업 지원 등 다양한 교내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 바란다.

문의 - 운영지원과 유지형 063-238-9425

문지민 편집장
dream_jimmy@naver.com

졸업생을 찾아서 - 수산양식학과



2022년 졸업생지도, 지도교수와 강 대표
(출처-김철원 교수 제공)

이번 학보에서는 우리 대학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한 창업농, 10학번 강승원 대표를 취재하였다. 강 대표는 현재 충남 태안에서 대상양식영어조합을 운영하며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과 양식 실험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향후 차세대 수산양식업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수산양식학과 1기 입학생 강승원 대표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새우 종자 생산업체인 ‘대상양식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학교 장기현장실습 현장교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졸업생이다. 강 대표는 우리 학교 1기 입학생임과 동시에 1번 학번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졸업생 중 한명이고 후배들에게도 존중받는 선배다.

지금도 실습 기간에 습득한 식물먹이생물 배양기술을 새우 종자 생산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으며, 새우 종자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모범적인 양식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본인의 변화 계기가 된 장기현장실습의 중요성과 앞선 기술 및 양식 어업인으로서 자세 등을 후배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장기현장실습 현장교수로 7년 간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졸업생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양봉을 산업으로 바라보다: 졸업생이 만든 로컬 브랜드의 성장, ‘선인화밀’ 현장 인터뷰

충북 괴산의 산자락을 따라 자리한 양봉원 ‘선인화밀’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농가가 아니다. 이곳은 산업군총학과 졸업생이 가업을 새롭게 해석해 양봉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환한 현장이다.

그는 아버지가 일궈온 생산 기반에 브랜드, 패키징, 온라인 마케팅, 고객 커뮤니티 운영 등을 결합해, 전통적으로 1차 농업으로 인식되던 양봉업을 고부가가치 로컬 브랜드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상품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새롭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졸업 후 바로 양봉 현장으로 들어왔다. 벌집과 기후, 개화 시기, 군세 관리 등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는 “양봉업은 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기후 변화가 토종꿀과 아카시아 개화 시기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스트레스 및 응에 방제에 따른 군세 균형 조절은 매 시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력과 기록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변화의 핵심은 현장 경험 위에 ‘브랜드’와 ‘시장 감각’을 더했다는 점이다.

현재 선인화밀은 다음과 같은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운영한다.

- ▶ B2B: 생벌 및 봉군 분양, 식품 제조사 대상 원료꿀 도매 공급
- ▶ B2C: 벌집꿀(Comb Honey) 및 단일화 원종 꿀 직거래 판매
- ▶ 콘텐츠·브랜드: 제품 스토리텔링, 라벨·패키지 디자인 직접 기획
- ▶ 로컬 연계: 오프라인 장터 참여 및 지역 농가 협업 구축

그가 생산하는 천연 벌꿀은 디저트 카페 및 프리미엄 식재료 시장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자연 그대로’의 경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제품이 되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그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단순히 “우리 꿀 맛있습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꿀인지”를 고객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 학교 2학년 장기현장실습 교육 농가로서 후배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충남 태안에서 새우 종자 생산과 양식업 관련 실험 데이터를 구축해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상양식영어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강승원입니다.

Q2: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지원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2: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식업 현장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이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입학 후에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특히 한농대가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이 제게 꼭 맞는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Q3: 수산양식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3: 양식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식량 산업과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양식 지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수산양식학과를 선택했습니다.

Q4: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한농대를 재학하며 얻은 점이 있다면요?

A4: 낚설던 수산 양식업이라는 직종에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현장 위주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생물의 건강과 환경 관리 원리를 과학적으로 배운 덕분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실험과 데이터 수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경험은 지금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Q5: 한농대 재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얻은 점이 있다면요?

A5: 처음에는 낚설었던 양식업이라는 분야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현장 중심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생물 건강 관리와 환경 관리 원리를 과학적으로 배운 경험은 현재 실험과 데이터 수집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경험은 지금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Q6: 대상양식영어조합과 대표님이 맡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6: 대상양식영어조합은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지만, 특히 양식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합 단위에서 새

우

우

우

우

“농업의 부가가치는 원료를 그대로 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현장에서 바로 실험해보는 사람이 결국 성장합니다.”

또한 그는 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도 도구도 아닌 ‘관찰’이라고 강조했다. 양봉은 기후 변화, 꽃 피는 주기, 벌 군세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양봉장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벌의 비행 속도가 평소보다 느린지, 먹이 소비량이 예년 대비 줄었는지, 여왕벌의 산란 패턴이 안정적인지 등 이 작은 징후들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좋은 양봉과 나쁜 양봉의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이 ‘관찰 기반의 사유(思惟)’는 후배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양봉의 핵심 역량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관찰과 해석은 현장에서 단련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양봉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매일 다른 자연을 상대하는 만큼,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선인화밀의 사례는 농업이 더 이상 ‘단순 생산 → 판매’의 구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양봉은 생태·관찰·기록·브랜드·유통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 경영 산업이며, 그 속에서 청년은 새로운 관점과 실행력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농업의 부가가치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은 실험이라도 현장에서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산업을 바꿉니다.” 괴산의 한 양봉장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지금 농업의 미래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준원 워크부장
jwgreg@naver.com

로운 기술과 관리법을 시험한 뒤, 그 결과를 어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7: 양식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나요?

A7: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실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 데이터가 제대로 쌓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더 현실적이고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만든 데이터를 어민들이 실제 양식장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입니다.

Q8: 대표님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수산양식업 비전은 무엇인가요?

A8: 앞으로의 양식업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 양식 방식과 스마트 기술은 이제 기본이며, 실제로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어민들도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 중심 양식에서 데이터 기반 양식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9: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9: 앞으로는 실험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표준화해, 한국 양식업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양식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해외 양식업과도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10: 후배들이나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10: 양식업은 더 이상 단순히 ‘물고기를 키우는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과학·기술이 결합된 융합 산업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랍니다. 실패도 결국 소중한 데이터가 되며, 그 데이터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강 대표가 운영하는 ‘대상양식영어조합법인’은 연간 평균 4억~5억 마리의 흰다리새우 종자를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새우 종자생산업체로 양식장 규모와 시설 및 기술력은 타 업체에 비해 매우 뛰어난 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새우 종자 생산에 필요한 초기 식물먹이생물을 본인이 직접 배양하여 공급하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부 질병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소독시설 등을

구

구

구

구

2025년의 한 해가 저문다. 학교 뒷산에 벚꽃이 만개하던 봄이 지나, 어느새 찬 공기 속 입김이 피어오르는 겨울이 찾아왔다. 3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니, 아쉬움과 후련함이 묘하게 뒤섞여 마음을 흔든다.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전공 수업은 지금도 선명하다. 고등 학교 시절엔 그저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학에서는 현장에서 배운 많은 기술과 능력을 가진 동기들이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작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 대신 선택한 건 ‘공부’였다.

쓰고 다시 쓰며 수업을 파고들었다. 수석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마음속엔 ‘더 잘해야 한다’는 불안도 함께 남아 있었다. ‘말’이 좋아서, ‘말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학교였지만, 정작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진 채 허둥대는 꼴이었다. 때로는 ‘내가 하는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1학년을 마치고 떠났던 장기현장실습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12개월 동안 두 곳의 실습장을 경험했는데, 한 곳에서 8개월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중간에 실습지를 변경하며 더 다양한 일을 겪었다. 배지 지역이 갑자기 변경되기도 했고, 실습 초반 2주 동안 재택으로 서류 업무를 혼자 맡아야 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탈출한 말을 잡으려 새벽녘에 딸 말까지 걸어 다니고, 산 너머 골짜기에서 위생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을 돌아다니며 말을 찾기도 했다.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시간이었다.

적응하느라 허둥대던 초반과 달리 한두 달이 지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인력 관리, 홍보 기획, 인쇄물 디자인 등 여러 업무를 맡으며 사업의 로우데이터 파악부터 프로그램 운영 구조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실습장을 옮긴 뒤엔 다양한 직원들과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고, 태어나 처음 나간 승마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부족했던 실력은 서서히 채워졌고, 고된 시간 속에 익힌 기술과 경험은 곧 나의 기반이 되었다.

3학년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뒤에는 학보사 편집장, 홍보대사, 학생회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시야로 학교를 바라보게 됐다. 누군가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



2025 동기해외연수, 지도교수와 강 대표
(출처-김철원 교수 제공)

갖추고 수질환경 유지와 건강한 종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우 종자를 판매한 이후에도 양식 기술과 질병 예방 정보 등을 종자 구입업체에 제공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새우양식 어업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며 매년 새우 선진국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등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열정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우수 장기현장실습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4년 해수부와 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수산 분야 차세대 경영인 대상 선정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가끔 학교 특강에서 후배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기술 개발만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조언하고 인내하고 극복하라는 따뜻한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실력과 인격까지 갖춘 졸업생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이자 대상양식영어조합 대표인 강승원 대표와의 인터뷰는 기록의 중요성과 데이터 기반 양식업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이야기가 차세대 수산양식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강승원 대표와 대상양식영어조합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김현수 기자
Khs030422@naver.com

한 해의 끝, 새로운 길의 앞에서

해 뛰어들면서 내가 가진 역량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수많은 시도와 도전이 결국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온 것이다.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실습장에서 땀흘리며 함께 일했던 동기와 직원들, 늘 현장 경험을 나눠주시던 선배들, 그리고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학보 기사 한 줄을 붙잡고 고민하던 기자들까지.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다. 누군가의 응원과 진심은 방향을 잃을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한 명의 학생을 예비 청년농이자 미래의 사업가로 키우는 곳, 그것이 우리 한농대이다. ‘할 수 있을까’를 ‘해냈다’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그 가능성을 나는 직접 느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나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학우들에게 작은 응원을 전하고 싶다.

입학을 기다리는 예비 신입생, 긴 실습을 앞둔 1학년, 실습을 마치고 돌아올 2학년, 그리고 현장에서 꿈을 펼치는 졸업생들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시간들은 지난 날보다 더 뜨거울 거라 믿는다. 때론 두렵고 버거울지라도, 서로의 걸음을 응원하는 이 공간이 있기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언젠가 캠퍼스 어딘가에서, 혹은 현장의 흙 냄새 속에서 다시 마주친다면, 그때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는 농업의 미래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의 길은 언제나 새벽처럼 밝아질 거라는 걸.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2025학년도 학보사를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한다. 그러나 한농대 학보는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기자들이 학교 안팎의 소식을 발로 뛰며 전할 것이고, 내년에도 이 학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

문지민 편집장
dream_jimmy@naver.com